

# 도침의정승 정헌공 휘 재 묘역 사초고유

## 都僉議政丞 正獻公 諱 載 墓域 莎草 告由

정헌공종회(회장 권준식)는 2013년 5월 15일 11시 정각 경기 파주 진동면 저온리 정헌공 3대묘역의 사초(莎草) 및 석물(石物) 고유제(告由祭)를 위한 봉심(奉審)을 가지고 후손들이 각지에서 참례하였다.

묘역은 4월 22일부터 7일간의 공사로 사초를 끝을 냈다. 사초 과정에서 정헌공의 묘명(誌石)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각지파의 찬조로 국내 3000여 평의 주위에 펜스를 설치하여 멧돼지 등 야생 동물로부터 묘소를 보존케 되었으니 이것은 후손들에게 숭조사상(崇祖思想)과 본보기가 되었다.

후(熙)는 국재공 권보(權漚)의 아들로써 충신왕이 사랑하여 (假子양자)를 삼고 왕씨를 내려 속직(屬籍) 시켰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왕제(王弟:충숙왕의 아우)로 칭했다. (熙權漚之子 上王愛以爲假子 賜宗姓 書于屬籍 故時稱王弟) 정헌공은 왕씨로 사성된 이후 조선조에서 손자 부윤공 속에서 다시 권씨로 복성하였다.

본 고유제는 사초를 필한 후 고유이어서 단배를 원칙이나 삼헌관을 천망하여 정헌공 밀직공 부윤공삼



△5.15, 정헌공 묘역 사초 후 고유제를 올리고 있다.

대분만 제수를 장만하고 다른 지파의 선조는 각기 준비하기로 결정하여 봉행하였다.

고유축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顯 二十代祖妣 純敬秉義同德輔理 功臣 三韓壁上三重大匡(현 이십대 조고 순성비의동덕보리공신 삼한벽상삼중대匡) 都僉議政丞 判典理事 上護軍 鷄林府院大君 府君

(도침의정승 판전리사 상호군 계림부원대군 부군)

顯 二十代祖妣 鷄林君翁主 南陽 洪氏之墓 既奉既莎 舊宅維新 伏願 (현 이십대조비 계림군옹주 남양

홍씨 지묘 기봉기사 구택유신 복원) 正獻公△초헌관 권재植 △아현관 권재眞△중헌관 권재升△축관 권재錫九

密直公△초헌관 권재選 △아현관 권재善△중헌관 권재來△축관 권재喆 府尹公△초헌관 권재春 △아현관 권재順△중헌관 권재五△축관 권재貞澤

찬조 : 대사헌(諱 弘) 종중 : 1400 만원, 집의공(諱 義公) 종중 : 1500만 원, 만해공 종중 : 묘소 입구표석

(회산부원군회장 권정택)

# 부호장공파종회(副戶長公派宗會) 제60회 경로잔치

안동권씨부호장공파종회(安東權氏副戶長公派宗會:會長 權丙均)는 5월 20일 오전10시 30분 안동시 대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고문(顧問)과 종원(宗員) 부녀회원(婦女會員)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경로잔치 및 웃놀이 대회를 가졌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경로잔치에 당초 권영세 안동시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날 경로잔치에는 60세 이상의 고문단과 종원들이 참석했는데 식순(式順) 없이 권병균 회장의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잔치가 시작되었다. 권 회장은 "이 뜻 깊은 날에 푸짐하게 차린 음식을 마음껏 드시고 웃놀이를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잠시 후 권인호(權仁虎), 권

희택(權羲宅) 두 고문의 간배제가 있었으며 부녀회원들이 준비한 비빔밥과 각종 과일, 술, 음료를, 떡 등의 푸짐한 음식으로 점심식사가 이어졌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화기애애(和氣霽霽)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가 오고 가기도 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종원들은 추첨을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 2시간가량 웃놀이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종회는 부녀회가 꼭 필요한 것을 느끼고 이날 부녀회를 조직하여 회장에 조선행, 총무에 권윤자를 각각 선임하였다. 권병균 회장은 "부녀회 조직을 기회로 앞으로 권씨 딸과 며느리들이 대거 동참하여 부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5.20, 안동 일원정에서 부호장공파종회 경로잔치 및 웃놀이 대회를 하였다.

고 말했다.

종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태일 한 장과 러닝셔츠 한 짝씩 선물로 주었다. 부호장공파종회는 60년 전부터 일원정에서 종원의 친목과 화합 단

결을 위하여 해마다 복회(伏會)를 개최하여 오다가 최근 '복회'의 명칭을 '경로잔치'로 개칭하고 아울러 웃놀이 행사를 접가시켰다. <보도부장 권영건>

# 권율 도원수부 재현 관아 등 사업 착수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 충장공(忠莊公) 권율(權傑) 都元帥부 재현공원사업이 시작되었다. 지난 3월8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권율도원수부 재현공원사업' 공사를 맡은 진성 엔지니어링(창원)이 이인도 합천군 문화체육과장, 김종덕 초계면발전협의회회장 및 주민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사업내역은 합천군 초계면 8-8번지 일원 31,885 평방미터 면적에 총사업예산 97억 원 규모로 2014년 말까지로, 객사 등 역사문화시설과 초계장터 등 커뮤니티 광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 주민운동을 위한 주민참여시설, 소나무 숲 등 녹지시설 등으

로 조성될 예정이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宣祖實錄) 36권에 의하면 권율장군은 1593년 6월7일 김명원(金命元)의 후임으로 8도(八道) 도원수가 되어 전라도 관군과 의병까지 장악하여 전국의 지휘권을 맡았다. 난중잡록(亂中雜錄)에 의하면 권율장군은 선조의 명을 받들어 선조 28년 1593년 12월25일부터 전선의 소강시에 진영을 합천으로 옮겨 유비무환을 위해 武料를 실시하여 900명을 뽑았다.

그리고 이순신 난중일기와 충무공 전서에 의하면 권율도원수는 1595년 7월에 도원수 직에 물러났다. 1596년 3월에 재임명되었다. 충무공 이순신은 1596년 4월부터 120일

간 백의종군을 하면서 6월4일부터 7월18일까지 45일간 합천(당시 초계)에서 보냈다. 이순신 장군 충무공 전서에 1597년 정유년 '5월29일 계속 일 초계로 가겠노라' 하였는데 권율도원수 진영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권율도원수 진영은 충무공의 유숙처인 모어곡(현 울곡면 매실)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

초계여지에 보면 합천군 벽전리(碧田里)에 병영이 있다고 했으나, 당시 병조판서 유성룡(柳成龍)의 군의 규율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장수가 막사도 없이 산중에 천막을 치고 있었다'고 한탄한 것으로 보아 당시 병영은 벽전리에 두었으나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옮

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율 도원수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합천(당시 초계)지역에서 무과를 선발하여 군사병영은 물론 진지, 둔전(屯田)을 경영하며, 기사장(騎射場), 습사장(習射場)에서 군사를 훈련시켜 정유제란시에 왜적을 방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합천군에서는 '권율도원수와 선무공신들의 위상을 재조명하고 지역민들에게 자긍심과 향토애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초계면(옛날 초계현감 소재지)에 권율 도원수부의 재현 공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다. 安東權氏 문중에서도 뜻 깊은 일이며, 본 사업이 호국문화의 도장으로 발전성공하길 기원한다.

<槐雲 權海兆 북아공파 36세손>

# 2013년 행주서원(紀功祠) 춘향제

2013년 4월 24일 11시 정각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의동 162-1번지 소재 행주서원(杏洲書院)에서 춘향제를 봉행하였다. 행주서원은 원래 기공사(紀功祠)인데 서원으로 개원하여 유림들의 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해진 시각에 국민의례를 순서로 시작하여 집례(執禮)의 명령에 따라 제례가 봉행되었다. 기공사에는 권율 도원수의 사당이나 2008년부터 행주대첩 승전을 같이 한 6분의 장수들도 같이 배향하여 주벽: 안동권율 도원수와 선거이, 조정, 변이중, 이빈, 정걸, 처영 이상 7분이 배향 되어있다.

제례봉행은 전폐례(奠幣禮), 초헌례(初獻禮) 덕양구정장 金京周 아헌례(亞獻禮) 행주산성 관리소장 成昌錫 종헌례(終獻禮) 주벽: 권씨 문중대표 권병일(權炳逸) 대축(大祝)에는 권진택(權貞澤) 제전위원(祭典委員)이, 집례(執禮) 정대채(鄭大采) 이어서 6장수(將帥) 문중대표가 봉행하였다. 그리고 음복례(飮福禮) 끝으로 마포례를 하였다.

권율 도원수(權傑 都元帥)는 1537년(중종32)-1599년(선조32)조선중기 문신, 명장. 자는 언신(彦瑱). 호는 만취당(晩翠堂) 모악(暮嶽) 본관은 안동(安東) 영의정 철(轍)의 둘째 아들이며, 이항복(李恒福)의 장인이다. 제상의 집안에서 성장하



△4월 24일 2013년 행주서원 춘향제를 봉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였으나 자만하는 빛이 없었고 46세가 되던 해인 1582(宣祖15년) 무년 무과(武年武科)로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가 되고 전직(典籍)을 거쳐 1587년 전라도사(全羅道使)로 나갔다가 1591년 의주목사(義州牧使)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광주(光州)로 돌아가 남원(南原)에 주둔, 1천명의 의용군을 모집하여 다시 북진, 금산군(鎭山郡) 이치(梨峙)에서 고비야카와의 정예부대를 대파하고 전라도순찰사(全羅道巡察使)에 승진했다. 군사 일만 명을 인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선거이(宣慰使)를 부장으로 삼아 서울로 진격하던 도중 독산산성(毒山山城)에 주둔,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여 지구

전(持久戰)과 유격전(遊擊戰)을 전개하여 우가다 부대의 공격을 받았으나 이를 격퇴하였다. 1593년 병력을 나누어 선거이에게 시흥(始興) 금주산(衿州山)에 진을 치게 한 후 2천8백의 병력을 이끌고 한강을 건너 행주산성(幸州山城)에 주둔 3만 대군으로 공격해온 고비야카와의 일본군을 맞아 2만4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였다. 1599년(선조 32년)에 노환으로 관직을 사임 고향에 돌아갔다. 사후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고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에 영가부원군(永嘉 奉原府院君)에 추봉 되었으며 행주기공(居怡)을 부장으로 삼아 서울로 진격하던 도중 독산산성(毒山山城)에 주둔,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여 지구

# 高陽 600주년 행주문화제

2013년5월4일 토요일 9시30분 고양 행주문화제가 행주산성에서 열렸다.

고양시가 매년 행하는 전례행사이며 급년이 행주문화제 26주년 행주산성 총장사 사당에서 충장공께 행사를 아뢰는 고유제가 봉행된 다음 동상 앞에서 문화제의 개막을 선언하는 퍼포먼스가 있었다.

한편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산성 충훈정에서 궁도대회가 열리고 산성 잔디마당에서는 행주마당 토막

극장 놀부야가 공연된다. 산성 주차장에서는 승전의식이 1시간여 공연 산성정문에서는 수문장 교대식 의식 거행하고 행주 가마대의 행렬이 연출되었다.

동상 앞에서는 행주 도당 국관이 벌어졌다. 2시간여의 국관은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즐겁게 관람하는 모습들이었다.

그밖에도 곳곳에서 전통놀이 체험 다도체험 가훈만들기 신기전 마당 오마주 권율도원수 다정한 행주

주먹밥 등의 행사가 벌어졌다.

원래 이 고양 행주문화제는 임진왜란 행주대첩 당시 전사한 병사와 억울하게 죽은 백성 및 적국 일본의 왜군병사까지의 원혼을 진위하고 충장공 권율 도원수의 영령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산신이 있는 덕양산의 산신을 달래 산 하춘 자골과 맨들마를 사람들이 도당제의 형식으로 수백년 전부터 해내려온 전통의 민속행사로서 이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질병예방 및 풍년 등을 기원한 것이다.

행사가 1980년대 말 행주문화제라는 명칭으로 승격되어 지역 문화제

로 발전하면서 주민과 시민과 및 문화원에서 협조하여 오늘과 같이 발전되었다. 고유제 집사가 봉행은 다른 때와 다르게 삼헌관이 함께 입실하여 차례대로 헌작을 하였다.

원래고유제는 단산 헌작을 하나 이번은 시간단축을 위하여 부득이 이와 같이 봉행하였다.

초헌(初獻) 최성(崔星) 고양시장 아헌(亞獻) 신재길(宣在吉) 시의회 부의장 종헌(終獻) 방규동(方奎東) 고양문화원장(高陽文化院長) 집례(執禮) 정대채(鄭大采) 제전위원 대축(大祝) 선호술(宣鎬述) 제전위원 <권정택 성균관 전의>

# 전국 청장년 체전

이날 열린 끝에 경기성적은 다음과 같다. △종합우승: 경주 청·장년회 △종합중우승: 청송청·장년회 △종합3위: 영천청·장년회 △단체준남자: 1위 안동청·장년회, 2위 영천,청송청·장년회, 3위: 제천청·장년회 △

400m 계주: 1위 경주청·장년회, 2위 의성청·장년회, 3위 영천청·장년회 △스카드게임(3개 청·장년회 연합팀): 1위 창원,청송, 대진청·장년회, 2위 경주,청주,광주청·장년회, 3위: 대구, 봉화,능곡청·장년회이다.

식후행사로 삼태기 메틀리 진행으로 흥겨운 소백꽃풍단과 김경연, 현숙이, 권용가수의 출연과 참가팀 전원 한마당 어울림행사와 노래자랑, 장기지랑, 경품추첨을 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 특산물 판매 장운영, 한문퀴즈 써주기(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유강 권승세), 봉화,능곡청·장년회이다.

단)를 하기도 했다. 다음 개최지는 대진청·장년회 주관으로 대전시 중구 침산동 효태마공원에서 개최되며 해외 및 국내 많은 족친들이 참여하고 준비위원회도 대종원사무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훌륭한 대회가 되었으면 한다.

<글 권오복편집위원>

# 楊洲 牧使公 諱 良 春享祭

2013.4.21.11시 경기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추밀공(樞密公) 정헌공(正獻公)계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둘째아들님 목사공(牧使公) 휘(諱) 양(良) 춘향제가 후손 40여명이 참석하여 봉행되었다.

목사공(牧使公) 양(良)은 18세로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복(復)의 7남 3녀의 둘째아들로 세조 1년 1455년 12월에 좌익원종공신(左翼顯從功臣) 3등에 녹훈 되고 진주목사가 되었다. 세조 13년 1467년 안변부사 부임하며 1470년 6월 3일에는 당상관(堂上官) 통정대부(通政大夫) 진주목사가 되었다. 정과를 거치지 않은 음관으로서 당상관으로 올라 안변과 목사를 배한 것을 보면 그 품이 탁월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묘소는 바로 하패리 내릉의 건좌



원에 쌍분이고 옛 묘표가 있다. 현재 목사공 종중은 화산부원군에서도 건설한 종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회장은 권태균씨이며 화산부원군

감사도 역임하고 있다. 오늘의 향례는 강신 참신 초헌 아헌 종헌 사신 분축 순서로 봉행되었다. 초헌관 권오철 아헌관 권정택 종헌관 권대수



△전국체전행사에서 권영철 대회이사를 하고있다.



△전국체전행사, 귀빈실에서 환영을 나누고 있다.



△경주시민 운동장에서 400m 계주를 하고 있다.



△대한무사회에서 심필기 무술시연을 하고 있다.



△체전행사에 처음으로 참가한 권영철 관서총친회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